

2019 상반기호 | VOL.99

너와 내가 하나의 원으로 만나 조화로운
두바퀴가 될 때 먼길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바퀴



창원경륜공단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경륜을 만드는 사람들

심판은 경륜경주에 있어 선수, 고객과 함께 3박자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1/2000초까지도 가려낼 수 있는 착순카메라를 비롯한 최신 디지털 장비들을 이용해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판정에 관한 모든 부분을 매 순간 라이브로 처리하고 있다. 경륜 심판은 엄격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 검정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현재 각 경륜장마다 10여명의 심판들이 활동하고 있다.





경륜선수에게 연습은 실전과도 같다. 창원경륜장 피스트에서 인터뷰 훈련중인 SS반 성낙송 선수의 표정에서 실전과도 같은 비장함이 느껴진다.

● 표지사진 김규태 / 기획홍보팀

두바퀴

2019 상반기 | VOL. 99

CONTENTS

- 04 **이사장 취임사** 김도훈 이사장
- 06 **상임이사 취임사** 김종길 상임이사
- 08 **경륜칼럼** 박광진
- 10 **공영자전거**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 12 **경륜정보** 2019년 달라지는 대진방식
- 13 **훈련원 탐방** 경륜선수의 요람 경륜훈련원
- 16 **공단사이클팀** 명가재건에 나선 사이클팀
- 18 **공익사업** 어린이날 행사·체험행사
- 20 **두 바퀴 인생** 이재일_경륜14기
- 22 **가보고 싶은 우리 땅** 통영시 연대도
- 24 **직원기고** 신입직원에게 듣는다
- 26 **창원 돔 소식**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 급식봉사 등





우선 바쁘신 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주신 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임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김도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쾌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우리 공단 여건들이 참으로 어려워, 즐거운 마음 보다는 굉장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개구리 실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비커에 적정온도의 물을 담고 개구리를 집어넣어 천천히 온도를 올려봤더니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다가 100℃가 되어 물이 끓으니깐 그 자세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뜨거운 끓는 물 100℃에 바로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깜짝 놀라서 그냥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전자의 개구리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류사업은 약 20년, 누비자 사업은 10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 동안 경영이 안정화 되어 있을 때에는 부지불식간에 안주하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단은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의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앞에서 말한 그런 개구리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전거의 두바퀴가 되어 같이 열심히 달리고자 합니다. 저의 마사회 근무경력 약 5년, 또 공기업으로써 전체 27년 근무경력을 잘 살려서 우리 공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 임기동안 일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공단의 주요 경영방침은 내부고객인 여러 직원들과 상시로 공유하겠습니다. 난제를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장실을 상시 개방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개선사항을 경청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를 원칙으로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승진, 보직, 징계 등등 할 것 없이 인사와 관련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은 '투명성'의 원칙하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셔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에 기반 하여 클린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저의 뜻에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객입니다. 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가?, 왜 고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고객이 찾

아오게 할 것이냐?’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객만족」수준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고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규고객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공단에 여러분들의 친구 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우리의 자랑인 누비자도 타보고, 공단 시설도 둘러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우선 직원 여러분들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찾고, 그 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까지 홍보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직원에겐 특별히 포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경영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사명변경을 통한 이미지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변경은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제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에 동참하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의 사업영역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조직구조의 개편입니다. ‘역피라미드형 조직체계, ‘조직구성원의 노령화는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직구조의 개편 없이 조직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고 신규사원 채용 등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해 공단에 생기가 돌고 일할 수 있는, 일할 맛이 나는 직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휴일이 다르다 보니 시·도 등 근무형태가 다른 유관기관과의 소통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를 비롯해서 도, 사감위, 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앞으로 유념해주시고, 좋은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누비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입니다. 누비자는 시민들의 교통편이자 여가선용의 수단,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우리의 자랑을 넘어, 우리 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는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의 두바퀴처럼 ‘노와 샨’이 하나가 되어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을 합쳐서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영정상화가 아닌, 중장기적인 경영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경영위기를 타파해 나가서 여러분에게는 자랑스러운 기업,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호흡을 맞춰 나아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19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경 제7대 김종길 상임이사 취임식

• 2019. 5. 12 (일) 11:00



반갑습니다. 상임이사 김종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훈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살펴보니, 깨끗하게 관리된 청사와 잘 정돈된 취임식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표정에서 긍정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께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단하고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공단이 오픈한지 한달쯤 되었을 무렵 친구와 함께 경륜장을 방문하여 베틀 가이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안내하는 직원이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베틀 방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마치 본인의 딸이 자기에게 설명을 하는 듯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근무하던 기관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벤치마킹을 추진 중이던 대상 기관은 국민은행 소공동 지점, 신라호텔, 롯데호텔, 서울시청 등이었는데 우리공단도 추가할 것을 지

시했으나 실무담당 직원이 공무원 조직과 비슷한 곳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말하면서 재차 벤치마킹할 것을 지시하였고, 복명결과 우리공단의 친절도가 높은 기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소방본부장으로 퇴직 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전에는 경찰기관에서 5년 정도 근무하였고,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퇴직 후, 퇴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정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한 때 심적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 등으로 힘들었는데, 일례로 인명구조 현장에서 2명을 구조하고 1명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다면, 헬기로 갔다면 하는 등의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은 다시 한 번 치열하게 일하고자하는 저의 의지와 주변의 조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수차례의 구직활동을 통해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단 가족여러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부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첫째,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저를 필두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저와 함께 '선공후사'의 자세로 임하도록 합시다. 사회과학논문을 통해 자주 볼 수 있는 논제인 '직장인의 성공방안'을 살펴보면 '선공후사', 즉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면 조직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명제를 유념 하면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토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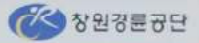
조직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실무 총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직원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직원들과 이사장님과의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공단은 현재 경영수지 개선이 최고의 과제이자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기별 플랜 (단·중·장기) 수립으로 선행과제 즉시 추진 및 미래 가치 창조에 힘을 모읍시다.

셋째, 신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신이 나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김종길 상임이사 취임

2019. 5. 12 (일) 11:00



마지막으로 저의 7년 동안 기관장 시절, 여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장 5년, 본부장 2년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원 중 단 1명도 형사사건이나 징계로 불명예 퇴직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650여명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 수시로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경조사, 소송 등이 있었지만 저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직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 된 우리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2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김종길

실패 후 타인의 평가에 대처하는 법

인간은 타인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환경에서는 우선적으로 상황을 지각하고 적절한 방어기재를 작동시킨다. 이는 본능이 지배한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반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명, 합리화, 상대방 비하 등이 그것이다. 전혀 얼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대인 기피증, 신경증은 물론 신체적인 반응까지 수반하여 가슴 답답함, 공황장애 등의 신체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명할까? 스포츠심리상담사 박광진 박사가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대부분의 평가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수준에서 행해진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릇만큼만 세상을 보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 또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상대방의 신념을 나에게 드러내는 행위다. 그러한 평가는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으며 비합리적일 수 있다. 중요한건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다. 찬성이 있다면 반대는 필연적이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 굳건하게 밀고나간다면 그러한 평가쯤은 조금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릇 만큼만 세상을 보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 또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 박광진
PK스포츠심리연구소 대표
마산대학교 겸임교수
전 프로 경륜선수

둘째,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와 연결된다.

간혹 어떤 이와 대화를 하다보면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이는 자신의 신념체계와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흔히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변화를 거부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의 신념은 어린 시절 거의 대부분 형성된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신념체계는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거울효과(미러링 효과)로 인해 무비판적으로 학습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러한 신념을 확신하고 있다.

셋째, 많은 대가를 지불했으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사심이 개입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돈이 관계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현상에만 얽매이기 십상이다.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 길거리에서 헌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처음 대시할 때는 매력적인 여성이 쳐다도 보지 않고 콧방귀만 뀌고 지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그녀 옆을 지나가니 그녀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녀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해 인간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본래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본질에 집중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대방의 부정적인 평가 후 대처법

그렇다면 상대방의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의 평가는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스포츠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실패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때의 대처는 어떠해야 할까?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것은 결과목표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하지만 과정목표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기량향상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결과로 인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량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실패와 성공이 아닌 자신의 기량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존재한다.

천재 농구선수로 추앙받는 마이클 조던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는 고등학교 시절 동료 선수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대표선수로 발탁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때의 충격은 그를 미래 세계최고의 농구선수로 성장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애물이다. 장애물은 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넘지 못한다면 멈추게 된다. 슬럼프 극복의 핵심 또한 그러하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 합리화가 옳은 합리화일 수도 있고 잘못된 합리화일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본인 스스로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해서 내린 최대한 객관적인 합리화가 되었을 때 신뢰할 만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유명 운동선수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악플을 보지 않고,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루머를 무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내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은 상대방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 스포츠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게임을 해야 하는 이유다.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은 창원시에서 추진중인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녹색도시 정책 실천에 동참하고, 범시민 자전거 이용,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은 창원시 관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기본교육, 누비자 이용방법 등을 국가대표 사이클선수 출신의 자전거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습하며, 이와 별도로 공단내 자전거문화센터에 내방하여 자전거 실기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문화센터에서는 국내 최대의 자전거교육장을 활용한 자전거 교육 외에도 자전거의 역사, 문화, 정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 테마별 추억의 자전거와 국내 주요업체의 최신 자전거를 한 곳에 모아놓은 전시관, 최소 부품 가격으로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중고자전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자전거문화센터(055-239-1185)





2019년 달라지는 경륜경주 대진방식

트라이얼 대진방식 상시화

2019년 1회차부터 창원경륜의 대진방식이 달라졌다. 종전 1일차 독립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1,2일 경주성적을 합산하여 3일차 결승경주에 진출하는 트라이얼 대진방식을 상시화했다. 이는 고품질의 경주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수로 하여금 한 경주 한 경주가 결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품질의 경륜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 경륜훈련원, 1기부터 24기까지 1,107명의 경륜선수를 양성해 낸 경륜의 요람이다. 전체면적 383,536㎡에 세워진 여러 시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2개의 피스트(333.33m와 250m)이다. 아스콘으로 된 창원경륜장과는 다르게 아프리카에서만 자라는 아프젤리아 원목으로 만들어졌는데, 250m 피스트가 만들어진 직후 아프젤리아가 국제보호수로 지정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더 이상 아프젤리아 재질의 피스트는 건설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외에도 KBS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예체능'에서 강호동이 혀를 내둘렀던 경사도 14°의 등판주로, 스타트와 스피드 강화 훈련을 위한 300m 길이의 수평주로, 지구력 강화를 위한 2km 가량의 순환주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훈련원에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개인도로 금메달에 빛나는 장경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스프린트 동메달 임채빈 등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만한 사이클 스타들이 경륜 25기 후보생으로 입소해 제 2의 정종진을 꿈꾸며 10개월 간의 담금질을 하고 있다. 후보생들은 아침 점호와 함께 순환주로를 가볍게 뛰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전은 경륜경정법, 스포츠의학 등 경륜선수가 가져야할 기본 소양과 덕목을 배우는 학과 수업과 체력강화훈련을, 오후에는 등판·수평주로 훈련, 피스트에서의 경주주행 훈련을 하며 주기적인 도로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저녁 10시가 되어 저녁 점호를 마치면 그제서야 하루를 마무리 하게된다.

25기 경륜후보생들 모두가 10개월 간의 이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프로경륜에 데뷔하기를 기원해본다.





미리 만나보는 경륜강자!

▶ **임채빈 후보생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경륜후보생이 된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주시죠.

◀ 안녕하세요, 현재 25기 경륜후보생이자 국가대표 사이클선수를 6년 지낸 임채빈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들긴하지만, 그래도 훈련원 졸업 후 첫 데뷔 무대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 임채빈 후보생은 각종 세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국내에서도 단거리의 적수가 없어서 꽤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실업팀 소속으로 경기를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프로경륜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인천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고, 올림픽까지 아마사이클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해본거 같았고, 사이클을 처음 시작할 때 목표이자 꿈이었던 프로경륜을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아마사이클과 프로경륜의 차이점 같은게 있나요?

◀ 장단점이 확실히 나뉘는 것 같습니다. 프로경륜은 합숙훈련을 하는 아마사이클에 비해 개인생활도 많고 집에도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감독, 코치 없이 혼자서 훈련과 몸 관리를 해야하고, 사이클장비 구입·관리, 출·퇴근 같은 사소한 부분들까지 스스로가 챙겨야한다는 점이 좀 힘든거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사이클에서 얻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에 그에 그런 부분들을 프로경륜에 접목해야할 거 같습니다.

▶ 200m와 1km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1km 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 6연패를 할 정도로 적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종목과 다른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 프로경륜시합에 참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 경륜의 경우는 제가 해왔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순위경기이다보니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몸싸움 같은 위험한 상황도 있어서 정말 두렵기도 하고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대플레이도 염두해두고 경기를 해야하는 경륜의 특성이 아직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준비해야하는게 제일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솔직히 후보생들끼리만 관리경주를 해보고 해서 제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 그러면 닳고 싶은 선수와 한번 겨뤄보고 싶은 선수는?

◀ 일단 아마추어 때는 강호 선수가 롤 모델이었구요, 지금은 대구팀 류재민 선배님이 롤 모델입니다. 선배님의 경기력은 당연히 일품이지만 경륜선수이기 이전에 가져야할 인성이나 인간적인 부분들이 정말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도 하고 꼭 저도 후배들에게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재열 선배님도 좋은 훈련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겨뤄보고 싶은 선수는 특선급 선형강자들과 붙어보고 싶은데 지금 생각나는 선수는 황준하, 정해민 선수입니다.

▶ 나중에 꼭 연습경기 한번 주선했습니다. 끝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 경륜후보생이 되면서 세운 목표중 첫 번째가 우수급으로 졸업한 후 9연승해서 특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선형강자로 인정받고 1~2년 후엔 SS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졸업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를 기대해주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패기있는 모습으로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뤄내서 성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임채빈 Vs 장경구

▶ 장경구 후보생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개인도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 국가대표 장경구이자, 현재는 열심히 훈련중인 이긴 하지만 많이 부족한 25기 경륜후보생 장경구입니다.

▶ 경륜후보생이 된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주시죠.

◀ 고등학교때부터 프로경륜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륜후보생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은 제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 국내 도로사이클 최강자인 장경구 후보생이 보장된 대우를 버리고 경륜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때 첫목표가 프로경륜선수였습니다. 두 번의 아시안게임을 하고나서 목표였던 프로경륜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 아마사이클과 프로경륜의 차이점 같은게 있나요?

◀ 제가 중장거리 도로선수여서 체력적인 부분은 힘들어도 경기를 풀어갈 방법을 알고 있는데 단거리로 전향해보니 체력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고 10년을 선수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 장경구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전히 도로사이클이 떠오릅니다. 경륜의 장경구는 아직도 낯선데 주종목인 도로사이클과 경륜의 다른점이나 어려움이 있나요?

◀ 도로사이클은 혹시 중간에 낙차나 기저고장으로 인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경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륜의 특성상 좀더 섬세하게 집중해서 경기를 운영해야하는 것이 다른 점이자 어려운 점 같습니다.

▶ 임채빈 후보생에도 했던 질문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경륜시합에 참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거 같습니까?

◀ 제가 지구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배님들께서 워낙 기술면이라던지 그런게 뛰어나셔서 현재 제 실력이라면 선발정도 밖에 못탈거 같습니다.

▶ 너무 겸손하신거 같은데요, 그러면 닳고 싶은 선수와 한번 겨뤄보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까?

◀ 황인혁 선배님의 선행력과 박병하 선배님 스피드를 적절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겨뤄보고 싶은 선수를 꼽자면 역시 황인혁 선배님입니다. 같이 경기를 하는 것이 선행력을 배우는데 좋을거 같고, 저 역시도 선배님처럼 강력한 선행으로 특선까지 도전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 선행하면 장경구가 떠오르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 아마사이클 시절 장경구는 시작하자마자 다른 선수들을 따돌린 후 독주하는 선수라는 인식이 박혀있는거 같습니다. 프로에 와서도 그때 모습 그대로 화끈한 선행으로 팬들께 감동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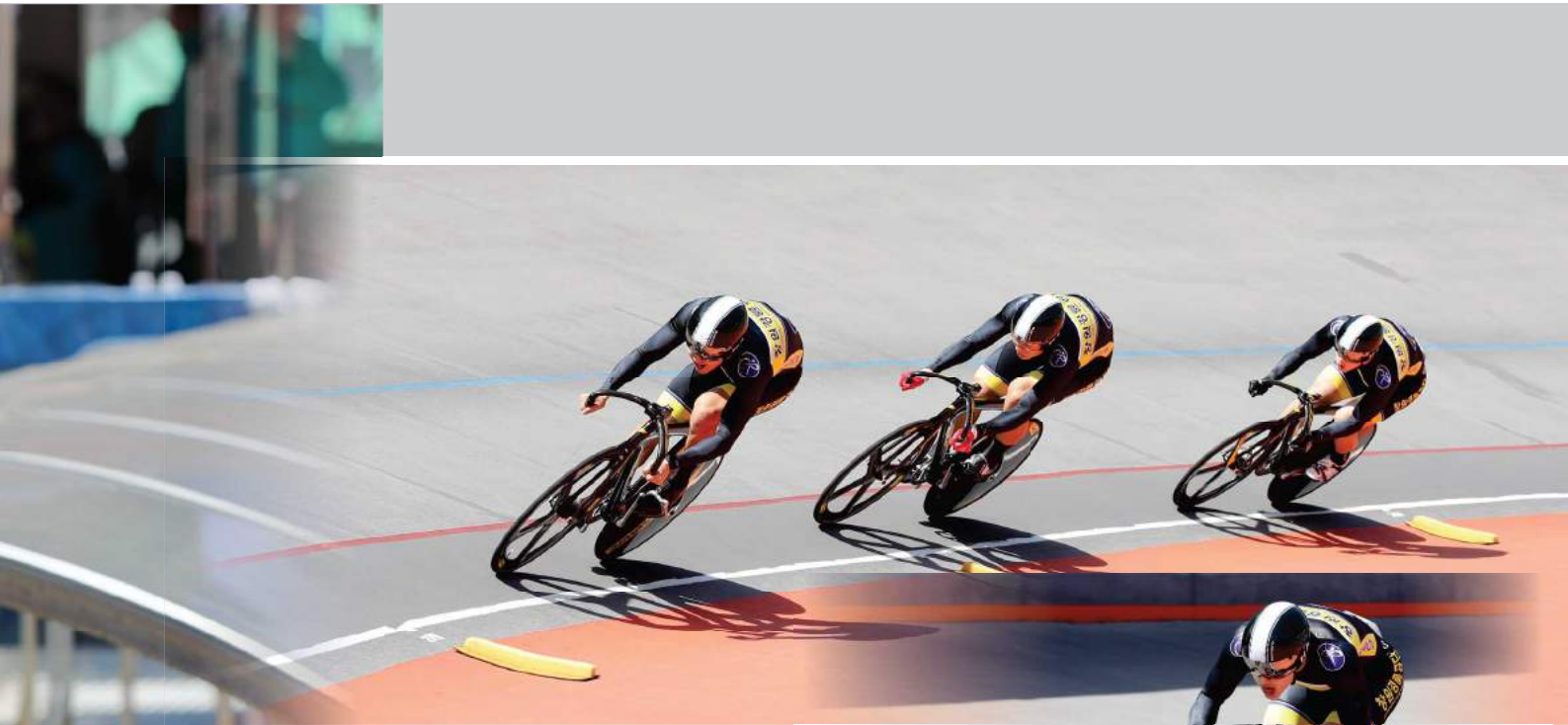


‘名家再建’

평가재건에 나선 공단사이클팀, 나주 대통령기서 금1, 은1, 동1

박상원 감독을 필두로 한 창원경륜공단 남자사이클팀은 경륜 최강 이현구, 박용범, 성낙송 등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한 실업사이클 명문이다. 고교 졸업 후 입단 희망팀 1순위였을 정도로 국내 실업사이클을 호령했지만 어려운 여건들이 겹치면서 성적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단사이클팀은 4월 나주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를 기점으로 부활의 서막을 알렸다. 단체 스프린트(김우겸, 정재희, 원준오)에서 1분 02초 667을 기록, 2위 양양군청(1분 03초947)과 국가대표가 준비한 3위 국군체육부대(1분 03초 997)를 1초 이상 격차를 벌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경륜에서 정재희 선수가 은메달을, 스프린트에서 원준오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해 2014년 이후 이 대회 최고의 성적으로 경남 유일 남자 실업사이클팀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전망도 밝게 했다.





경륜 최강 이현구, 박용범, 성낙송 등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한 실업사이클명문-



-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단체 스프린트 금메달을 따내 사이클 명가의 부활을 알린 원준오, 정재희, 김우겸 선수와 박상원 감독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창원경륜공단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사생대회에서는 유치부 20명과 초등부 21명이 참여해 그림 솜씨를 뽐냈으며 유치부에서는 임세린 어린이가, 초등부에서는 김수아 어린이가 대상을 차지했다.

또 사생대회와 별개로 이색자전거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도 함께 실시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초등부 대상



▶ 유치부 대상



▶ 유치부 우수상



▶ 초등부 최우수상



다함즐 체험교실에서는 공단 이용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다.
 어버이날 맞이 꽃바구니 만들기를 시작으로 캘리그래피(붓펜), 힐링명상교실(진해 편백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 055-239-1074(월, 화 휴무)



다함즐 체험교실 운영

100번의욕도 1번의창찬으로 다시금함을개셔...



경륜선수&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재일을 만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불혹의 나이 40이 된 경륜 14기 이재일입니다. 창원경륜 팬분들과 두바퀴 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경륜선수 이재일'보다 구독자가 8000명에 육박하는 'Chrislee TV' 채널의 '크리스리'로 더 유명한거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스포츠 못지 않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스포츠인 경륜을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평소 저의 화려한 입담을 알고 있는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습니다. 또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륜장 내부와 검차 관련 촬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창원경륜공단의 지원은 없었던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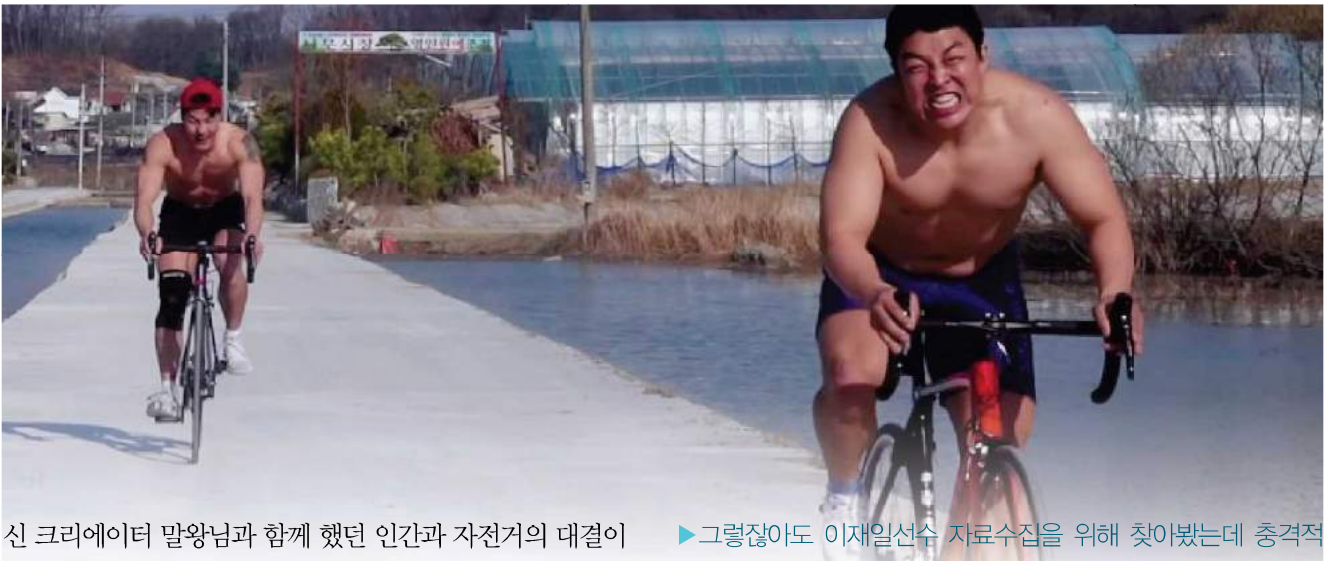
하하..., 그건 아니고 창원경륜공단도 항상 많은 지원해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창원에서 좋은 아이템이면 촬영하도록 할테니 강력한 지원부탁합니다.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왕과 대결편을 재밌게 봤고 주변에 추천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이재일 선수가 추천하는 Chrislee TV 최고의 영상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프로파이터 김형수 선수와의 대결과 경륜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편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말씀하

이재일 선수 프로필

- 출생년도_1980년 ■ 신장_172cm ■ 몸무게_84kg
- 서초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졸업



신 크리에이터 말왕님과 함께 했던 인간과 자전거의 대결이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130만 뷰를 달성했고,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의 시청으로 이슈가 됐으니까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대단합니다. 크리에이터로서 힘들거나 재미난 점이 있다면 몇가지 말해주세요.

경륜장이 아닌 바깥으로 나가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점이 좋구요. 직업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크게 힘든점은 없지만 2년가량 진행해오다보니 콘텐츠의 부재와 게스트섭외 같은 부분이 힘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크리에이터 이전에 본업이 경륜선수이시니 다시 돌아와서 경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일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몇가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세레모니'입니다. 2, 3등을 하고도 세레모니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많은 고객분들이 그런 모습에 즐거워하면서도 궁금해합니다.

우수급을 타거나 선발결승에서 세레모니를 자주 하곤 했는데 2, 3등을 해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쳐주시는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선수가 고객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세레모니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고객에게 보답하는 마음이군요. 멋집니다. 그렇다면 경륜선수 생활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경주는요?

신인데뷔 후 14기 동기생 최병일 선수와의 선발급 동반입상입니다.(*2007년 광명50회 2일차경주) 훈련원 룸메이트였던 절친한 동생이라 흥분을 감추지 못해 세레모니를 받고 공정팀의 전화를 받고 해명을 한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세레모니의 신호탄도 그때였지 않네요. 하하...

▶그렇잖아도 이재일선수 자료수집을 위해 찾아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량이 예전같지 않은거 같아서 세레모니도 보기 힘든거 같네요. 단순히 기량이 떨어진 건가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거 같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1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최선을 다해 달린다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의 약속이자 고객들을 위한 제 신조 같은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정도 팬들에게 경륜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거 같습니까?

몇 년? 딱히 정해지진 않을거 같은데 일산팀 3기 김우병선수처럼 자기관리 잘하고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고 후회없이 떠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창원경륜을 사랑해주는 팬들께 인사부탁합니다. 창원경륜장을 찾아주시고 13년간 벨로드롬에 몸 바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고객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은 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객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주로 화가 많이 나셨다면 시원하게 욕 한번 하시고 스트레스 푸십시오. 그리고 잘했을 땐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세요. 100번의 욕도 1번의 칭찬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는 것이 저희 경륜선수들입니다. 앞으로 선수생활동안 얼마나 더 많은 세레모니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팬들의 마음속에 좋은 향기로 남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는 이재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이재일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경륜선수로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선수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제로를 꿈꾸는 섬 '에코아일랜드'

연대도(烟臺島)

● 글·사진 김규태 _ 기획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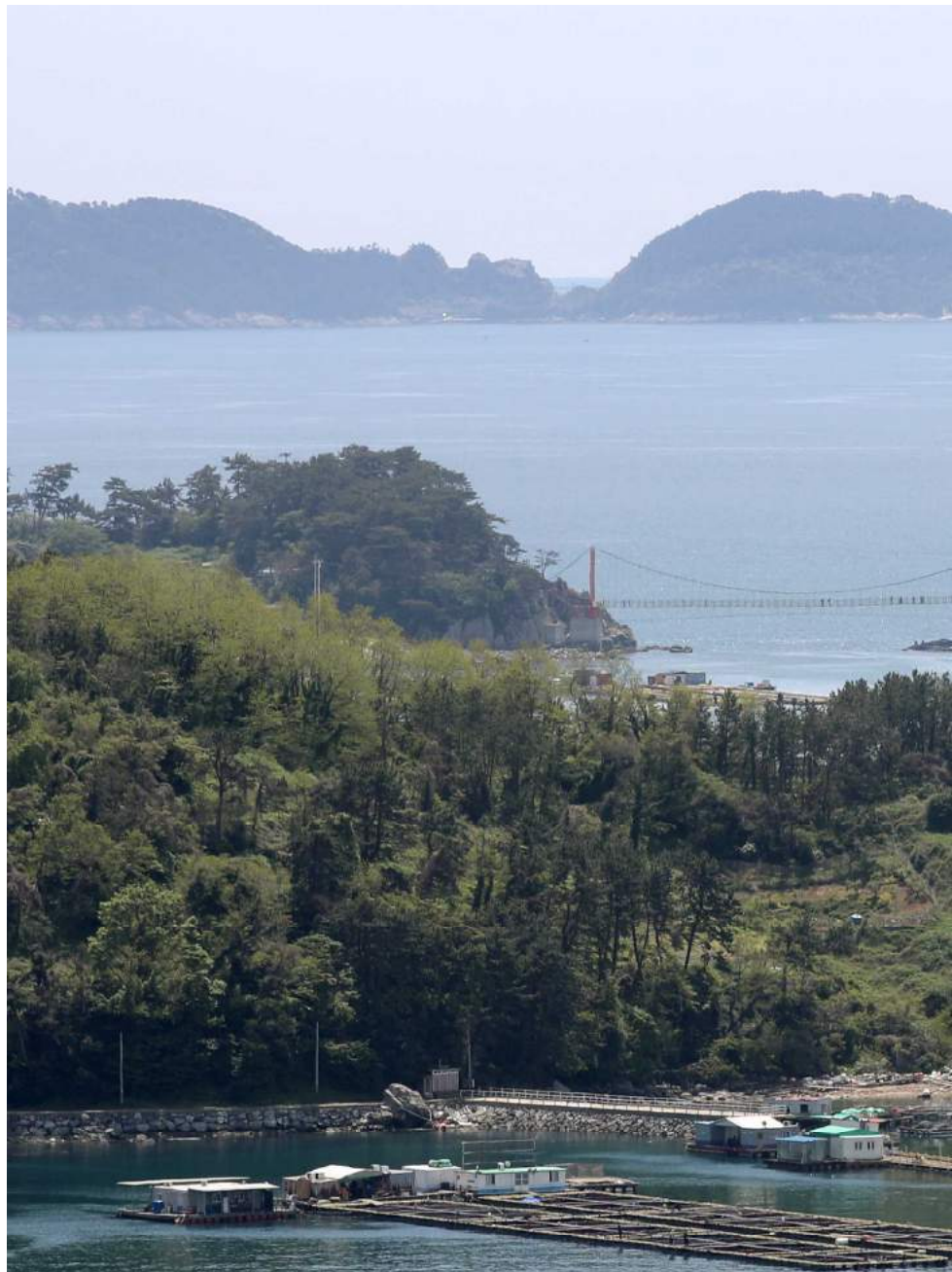
500여개가 넘는 섬이 남해바다에 뿌려져있는 통영시, 그 중에서도 연명항에서 배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연대도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대도는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왜적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섬 정상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봉화를 올렸다는데서 이름이 유래된 섬으로 지금은 어선들 외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최초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에코아일랜드'로 불리는 곳이다.

연대도를 들어서면 마을 끝자락 언덕에 태양광패널이 보이는데 40호 가량의 섬 주민이 매월 발생하는 전기료가 거의 '0원'일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 낸다고 한다. 마을회관은 태양광과 지열로 냉난방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 전국의 마을 회관중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곳이다.

영화 '백프로'에서 여진구가 걷던 옛스러움이 잔뜩 묻어있는 마을 골목길을 걷다 보면 독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집집마다 걸린 문패다. 연대도 문화해설사 서태욱씨 닷, '연대도의 카수 서재문, 강정숙의 집 그리고 그에 따른 '연대도 카수 서재문님, 강정숙여사가 재미나게 사는 집, 서재문님은 노래와 춤 솜씨가 일품입니다' 같은 부연 설명들. 문패만 봐도 누가 그 집에 사는지 그려진다. 요즘 도시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서 누가 사는지 이름이 적힌 문패도 보기 힘들데 참 재미있다.

달아공원에서 바라본 연대도 출렁다리 →



끝자락 언덕에
태양광패널이 보이는데 40호 가량의
섬주민이 매월 발생하는 전기료가 거의 '0원'일정도
마을회관은 태양광과 지열로
냉난방하는 패시브하우스



마을을 조금 벗어나 언덕을 향하면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4구간에 속하는 총 거리 2.3km의 '지깃길'이라 명명된 둘레길이 나온다. 이 길은 과거 주민들이 땀감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던 길이다. 에메랄드빛 남해바다와 주변으로 보이는 섬들을 보며 걷다 보면 힘든지도 모르고 걷게 되지만,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연대봉(해발 220m)은 높이가 높고 산세가 거칠어 마을 사람들에게겐 고난길이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도시에서, 직장에서 짜들린 삶을 힐링하기 위해 걷는다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섬 곳곳에 숨은 볼거리가 있는 연대도이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2015년 100여 미터 바로 옆 만지도를 육로로 연결시킨 출렁다리가 아닐까 싶다. 현수교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조금만 뛰어도 심하게 흔들리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을 구르며 갈갈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출렁다리만을 걷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하니 출렁다리가 연대도 관광사업을 먹여 살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걷는것도 재밌지만 다리 뒤 편으로 떨어지는 일몰 또한 예술이라 하니 주말에 가족, 연인과 함께 연대도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외에도 몽돌해변과 양귀비가 심겨져 있는 다랭이 꽃밭, 출렁다리 건너편 만지도의 견우길, 벽화마을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곳곳에 숨어있다.



만지도에서 바라본 연대도의 출렁다리 ↗
연대도의 명물 전복해물라면 →
만지도 벽화마을 벽화 ↘





신입직원에게 듣는다

“나의 출사표(出師表)”

다양한 경주방식과 운영방식을 도입해 젊은층을 유입해야...

공단의 입사전까지 자전거경주는 올림픽에서나 들어볼 정도로 경륜에 관한 지식은 전무했다. 하지만 경륜에 관해 공부해 하게 되면서 처음 접했을 때의 낯섦은 없어지고 경륜경정법에 의해 직접 베틀은 할 수 없지만 선수의 전법, 과거의 경주성적, 몸상태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추리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4개월여의 시간동안 지켜본 경륜에 대해 느낀점을 감히 말해 본다면 ‘다이나믹함이 떨어진다’이다. 여타의 스포츠경기와 다르게 모든 조건이 통일된 상태에서 오로지 선수의 기량과 전법으로 우승을 가리게 되는 부분과 매일 같은 방식의 단순로운 경주가 반복되다보니 다른 스포츠에 비해 루즈해지고 장년층만 찾게 되는 늪은 스포츠가 되고 있지않나 하고 생각해보았다. 좀 더 다양한 경주방식과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더 젊어진 고객층의 유입을 통해 젊은 스포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내가 그 부분의 한 축이 되어 공단의 미래를 이끌고 싶다.



김진현(공정발개발팀 ICT개발)

대기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볼 때면 무거운 책임감이...



박건영(총무회계팀)

입사를 하기전까지 나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고 면접 준비겸 경륜에 대해 알아보고자 최종면접 며칠전에서만야 공단을 처음 방문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된 경륜은 ‘왜 7명이 출전한다면서 8명(선두원 포함인줄 몰랐었다)이 돌고 있지?’라는 질문부터해서 ‘왜?’, ‘왜?’투성이였다.

경륜 자체를 보고 즐기려고 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는건 면접이라는 최종관문을 앞에 두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였을까?

꿈에 그리던 첫 직장인 경륜공단에 들어와 수습기간을 거쳐 벌써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총무회계팀에서 수입금업무를 배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자랑스럽고 뿌듯하면서도 한편 공단 입장시간보다 더 빨리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볼때면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아직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쫓기듯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선배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 나은 공단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 부서의 전문적인 모습들은 공단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이창기(총무회계팀)

10년 전, 픽스드기어(fixed gear) 자전거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게 되면서 경륜용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당시엔 고정기어를 사용하여 브레이크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은 심플한 모습에 반해 위험한 것도 모르고 도로를 내달렸다. 물론 그 때까지도 경륜용 자전거만 알았지 경륜사업과 경륜경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내가 창원경륜공단에 입사하여 경륜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수습부터 현재까지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직장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짐과 동시에 경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사회공헌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각 부서의 전문적인 모습들은 공단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첫 직장생활, 여전히 부족하고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주변의 도움을 통해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사보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앞으로 이런 마음, 잊지 않고 공단이란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데 조용히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시민이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부끄럽지만 경륜공단에 입사전까지 경륜이란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사행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실무교육과 팀별 OJT교육 등을 받으면서 우리 공단의 경륜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해 본 경륜의 매력은 사이클이라는 건전한 스포츠를 베이스에 두고 오락이 가미된 합법적 베팅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과 발매 수익금 중 경주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전액이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언제까지고 경륜에만 매달릴 수 없고 고객들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변화한 모습으로 한발 더 다가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륜을 넘어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고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시민이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을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을 좋아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 공단의 모든 조직원들이 공단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면서 나아가길 바란다.



진세연(기획홍보팀)

나무처럼 뿌리가 단단한 공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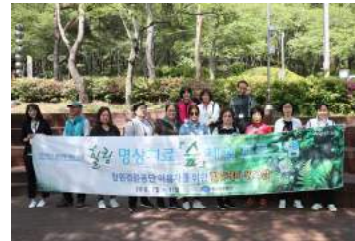


윤은진(기획홍보팀)

나에게 '경륜'은 단순히 '자전거경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입사 후 베팅, 배당률, 사행산업 등 무수히 많은 단어들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경륜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됐다. 특히 객장에 올라가 직접 경주를 관람하며 경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느낄 수 있었다. 경륜의 매력은 같은 조건에서 벌어지는 매번 다른 상황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객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경륜의 즐거움을 느끼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4개월차에 들어서는 지금 기획홍보팀에서 공단의 현황과 경륜·경정사업, 각종 업무처리 프로세스들을 배우고 있다. 경륜과 공단 전반에 대해 체득하여 기반이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가 단단한 공단의 일원이 되고 싶다. 또 이와 함께 건전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는 공단과 더불어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

진해 편백 치유의 숲 체험

5월 15일 건전 경륜 클리닉에서는 이용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진해 편백 치유의 숲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에서는 치유 해설사와 공단 클리닉 상담사의 인솔 하에 편백 숲 생태 탐방과 힐링 프로그램, 건강측정, 스트레스 관리법, 편백 건강죽옥 등을 실시하였다.



노사 '사랑나눔 급식봉사'

공단과 노동조합은 4월 22일 창원시 사파동 삼원재가복지센터에서 사랑나눔 급식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노조원 20여명이 참여, 어르신들께 삼계탕 150그릇을 대접하고 복지센터 주변 환경정비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 급식봉사

공단 고객편익시설 종사원 15명으로 구성된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이 4월 24일 창원시 사림동 평생교육센터 무료급식소를 찾아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은 무료급식소를 찾으시는 어르신 150여분께 식사 제공과 함께 백설기떡 200인분을 제공해드렸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드리기도 하였다.



김해지점 자전거 무상수리

공단 김해지점과 대한적십자사 김해 재난대응봉사회 15명은 4월 28일 하루동안 김해 무계 더라우아파트 일원에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총 68대의 자전거를 무상으로 정비해 주었다.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

창원경륜공단은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공식 페이지를 개설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나섰다. 앞으로 다양한 공단 소식 및 경주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고객의 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있다.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wDomerace

☆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cw_domerace



2019년도 예산현황 공시

창원경륜공단 2019년도 예산현황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1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 도 훈

1. 2019년도 예산규모 : 38,580백만원(2018년도 예산 37,410백만원)

2. 수지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예산	2018년예산	증△감	비 고
수 입 예 산	38,580	37,410	1,170	
◦ 수익적 수입	36,305	36,495	△190	
◦ 자본적 수입	2,275	915	1,360	
지 출 예 산	38,580	37,410	1,170	
◦ 사 업 예 산	36,305	36,495	△190	
- 영업비용	36,180	36,368	△188	
- 영업외비용	95	97	△2	
- 법인세 등	20	20	0	
- 예비비	10	10	0	
◦ 자 본 예 산	2,275	915	1,360	
- 투자자산취득	0	0	0	
- 유형자산취득	2,271	861	1,410	
-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0	50	△50	
- 예비비	4	4	0	

2009 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건실한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 무차입경영으로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